

■ 법률 칼럼

시민권 인터뷰 시 유의사항

1. 영어시험 관련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영어 읽기 쓰기 모두 통과 했는데 왜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민권 영어 시험의 구성을 잘 살펴보면 단순히 읽기 쓰기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평가 항목에 Speaking(말하기)와 understanding(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민시험 100문제 영어 읽기 쓰기 이외에도 간단한 말하기와 이해까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민관의 간단한 Instruction 즉 사진을 찍으니 카메라를 쳐다보십시오, 또는 왼손 검지부터 기계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등을 잘 따라 하지 못하면 일단 영어 이해력(understanding) 문제로 영어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하셨나요? 같은 간단한 질문에도 짧게 가족 초청(Family Petition) 정도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말하기 부족으로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400 양식 안에서도 단어를 물어볼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꼭 N-400 양식을 공부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2.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에 대하여

유의할 부분은 집행유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의 경우는 간혹 집행유예 중에도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시민권은 꼭 집행유예가 끝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과 / 체포기록이 있는 분들은 그 범죄 때문에 받은 벌금 / 집행유예 / 징역형 등이 모두 끝났다는 법원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진술서 등을 통해서 그 범죄에 대한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 다시 시민권으로서의 좋은 도덕적 품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그 품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음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3. 영주권의 합법성에 관하여

최근 가장 두드러진 경향이 영주권의 합법성을 따져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주권이 합법적인 것이 되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였어야 하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결혼이 유지되거나 또는 결혼 시에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다루어진 부분이라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 최근 인터뷰의 전반적 경향

최근 인터뷰의 경향을 보면 영어 능력을 많이 고려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시민의 자질로 영어 능력을 많이 보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반 가족 초청의 경우도 시민권자 가족 초청인이 영어를 못할 경우 이민관이 시민권자 초청인에 대해서 영어 공부를 하라는 불쾌한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어공부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5.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분들의 시민권 신청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시민권 신청 부모와 계속적으로 같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부모가 시민권 신청자 18세 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따로 자녀들의 시민권증서나 여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시민권 취득 후 자녀가 공무원이나 사관학교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는 따로 증서를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h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임플란트 틀니 '오버덴처'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인 무치악의 경우 가장 많이 해오던 치료법은 전체틀니다. 이후 임플란트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치아 개수대로 임플란트를 심어 자연치아와 같은 외형을 갖게 되는 고정성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됐다.

그러나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잇몸뼈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수술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임플란트를 대체 할 수 있는 임플란트 틀니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오버덴처'

적은 수의 임플란트 식립 이후 틀니를 고정하는 임플란트 틀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쉽게 말해 고정성 전체틀니로 치과 용어로는 '오버덴처' (Over Denture)라고 한다. '오버덴처'는 자연치아가 전혀 남지 않아 전체틀니(이하 틀니)를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다. 적은 수의 임플란트 치아를 식립한 뒤 그 위에 장치를 달아 틀니와 연결하는 구조다.

무치악 상태에서 틀니를 하면 유지력 및 지지력이 떨어져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 이 많은데,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치료법 이다.

■ 잇몸에서 빠지거나 통증 유발하는 틀니 의 단점 해소

오버덴처와 틀니는 특히 무치악 상태에서 사용감에 큰 차이를 보인다. 무치악 상태의 환자들이 일반적인 틀니를 사용하면 느끼는 대표적인 불편함은 말하거나 식사할 때 틀니가 빠지거나 저작 시(씹을 때) 잇몸 통증이다.

틀니는 단순히 잇몸에 끼워 사용하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식사할 때 조금씩 움직이면서 잇몸에 상처를 내거나 빠질 수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잇몸뼈가 축소돼 잇몸 모양과 틀니가 맞지 않아 털경거러 새로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음식을 씹는 힘을 지지해주는 구조가 잇몸 이외에는 없어서 씹는 힘이 잇몸에 그대로 전달돼 부담을 주고 통증을 유발한다.

오버덴처는 틀니의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보완한 것으로, 탈부착을 해야 하긴 하

지만 임플란트에 틀니를 부착한 이후에는 잘 빠지지 않는다. 음식을 씹을 때는 임플란트와 틀니가 힘을 함께 받아 저작 시의 통증이 줄어들게 된다.

■ 아래턱 2개, 위턱 4개 이상 임플란트 식립 후 틀니 유지 장치

일반적으로 아래턱에는 2개 이상, 위턱에는 4개 이상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자석이나 바(bar) 같은 유지 장치를 활용해 틀니를 유지시킨다.

위턱에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틀니와 달리 임천장을 개방할 수 있어 훨씬 편안한 느낌과 함께 미각의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오버덴처가 고정성 임플란트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수술 시의 용이성과 심미성이다. 오버덴처는 가장 뼈가 튼튼한 곳에 소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기에 고정성 임플란트 수술보다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

또 오버덴처는 잇몸의 모양까지 만들어 주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합죽이 입모양의 골흡수를 보완해 심미적인 요소도 더해줄 수 있다.

■ 전동칫솔, 구강세정기 함께 사용하고 정기적인 스케일링 필수

오버덴처, 임플란트, 틀니도 결국에는 치주 질환, 충치 등 치아 건강이 악화돼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들을 예방하려면 평소 치아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인공치아를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다. 인공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아 건강이 다시 악화되므로 오버덴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자연치아 못지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오버덴처는 자연치아와 구조가 달라 위생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칫솔뿐 아니라 전동칫솔이나 구강세정기를 함께 사용하면 좋다.

Micheal Han D.D.S
Star 28 Dental Clinic
TEL (714) 523-2828
goteamhcd@gmail.com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Buena Park에서 Fullerton으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